

## 중학생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문재우\*†·박재산\*\*

\*한세대학교 인문사회학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tial activity and ego-resilienc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ae-Woo Moon\*†·Jae-San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tial activity, ego-resilienc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xperiential activities.

**Methods:** 2,351 middle school students of panel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in the final analysi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was carried out to analyz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xperiential activity and ego-resilience,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youth. IBM SPSS Statistics 20.0 and IBM SPSS AMOS 20.0.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all data.

**Results:** Experiential activ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go-resilience( $p<0.001$ ), school life adjustment( $p<0.05$ ), and the sense of community ( $p<0.001$ ). Especially experiential activities acted on ego-resiliency, a sense of community, school life adjustment as an important parameter. Sense of community also showed to be an important mediating role between ego-resilien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Conclusion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experienti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community networking enough to take full advantage of community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 2013년 5월 30일, 수정일 : 2013년 8월 12일, 채택일 : 2013년 8월 22일

교신저자 : 문재우(435-74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Tel(Fax): 031-450-5248, E-mail: mjw1229@naver.com

resources and develop various experiential activities to meet the needs of youth and social change.

**Key words** : Experiential activity, Ego-resilience, Sense of community, School life adjust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65개국 중 독해 1위, 수학·과학 2위를, 국제교육성취평가협회(IAEEA)의 국제읽기능력평가(PIRLS)와 수학·과학성취도평가(TIMSS)에서도 2011년에 60개국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여 노인자살률에 이어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수면시간은 평일 평균 7시간 32분(적정 수면시간 8시간 30분)에 불과한 반면(여성가족부, 2010), 평일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외국에 비해 길게 조사되었다(김기현과 안선영, 2009). 이러한 통계는 학습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최근 기존 학교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청소년 체험활동 분야는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정책참여, 국제교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2010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고, 학교 외에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자원과 연계된 청소년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공동체 의식, 타문화 수용도에서 더 좋은 발달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여성가족부, 2012)에 비추어 볼 때 체험활동은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고와 감정의 모순이 일어나고, 논리와 비논리가 공존하는 등 양면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한국박물관협회, 2012)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당면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김현철, 2010).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은 현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체험활동은 지능, 기억력, 작업기억능력 등의 인지 기능 향상을 초래하고, 충동성 및 공격성의 감소와 자존감의 상승 등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노규식, 2010).

초등학교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했을 때 학생 중심보다는 학교 및 교사의 주도적 노력이 더 요구된다. 반면,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되어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학업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체험활동 경험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긍정적 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다양한 체험활동의

경험이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이기봉 등, 2011).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체험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삶의 동기가 강하고 보람을 더 강하게 느끼며, 최종학력이 더 높고, 수입도 더 많았다는 연구결과를 보더라도(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2009; 이기봉 등, 2011, 14-15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의 체험활동은 적극적인 체험과 실천적 습득을 바탕으로 성숙한 인간을 육성하는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임은 틀림이 없다.

청소년기 체험활동의 효과는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성, 사회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영순 등, 2012; 여성가족부, 2012; 안병환과 김창현, 2006)에서도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기존의 체험활동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박정임, 2013; 김영순 등, 2012; 백승림 등, 2012; 유솔아, 2012)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사회성(강지영, 201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김태완, 2012; 류시영과 강방훈, 2012; 김소희, 2007), 집단따돌림(배미희 등, 2012), 정신적인 긴장과 불안 해소(강민철, 2006) 등에 국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기존 연구 중 체험활동 참여 경험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고관우와 남진열(2011) 연구 이외에는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청소년(13~18세)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전체 응답자 중 43.2%로 나타났고, 우울감 경험률의 경우는 응답자 중 37.5%로 나타났으며(보건복지부, 2010), 최근 1년간 자살계획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이 19.5%,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3.6%로 조사된 바 있다(최인재, 2012). 최근 오원춘의 토막살인을 재연한 10대의 엽기살인 사건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10세 때의 품행장애

(conduct disorder)를 방치할 경우 27세에는 약 £ 70,000(약 1억2천만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서(Knapp et al., 1999)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준다. 체험활동을 통해 자아탄력성이 제고되고 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 긍정적인 기질과 사회적 역량(competence)을 청소년이 갖게 된다면 체험활동은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보호인자(protecting factors)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등과 같은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즉 창의성, 인성, 역량 측면에서 가장 예민한 청소년기 특히 중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은 내면화 혹은 체득화의 과정을 거쳐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학교 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2012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9%, 고등학교 1.9%로 전체학생의 약 1.1%에 해당되며 학업중단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학교부적응이기 때문에(한국교육개발원, 2012) 체험활동이 학교부적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다면 본 연구는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체험활동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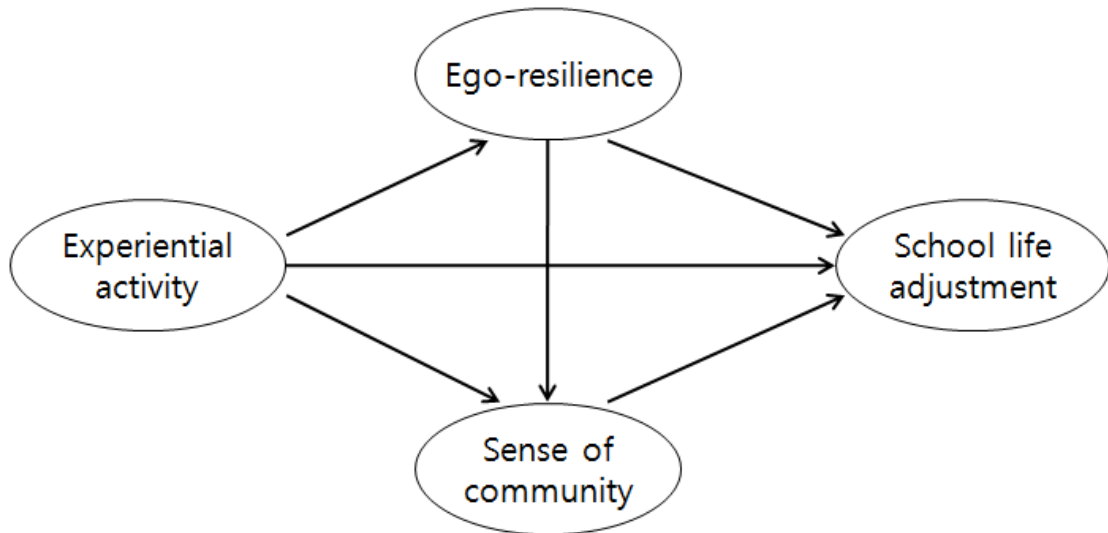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 후 <Figure 1>과 같은 연구모형과 6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독립변수인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변수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매

개 역할을 하는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이 최종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이며, 설정된 모형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을 것이다.
- <가설2>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 <가설3>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 <가설4>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 <가설5>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 <가설6>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Figure 1> Study model

##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패널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1차년도 중1패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중1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을 이용하여 16개 특별시, 광역시, 시·도별 중학교 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지역별 목표 표본수를 할당한 후 목표 표본수에 따라 학교 수와 학교를 결정하고, 추출된 중학교 1학년의 학습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2010년 1차년도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 2,35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정의 및 조사도구

### 1) 체험활동

본 연구에서의 체험활동은 아동청소년패널조사 항목 중 건강·보건활동(신체 단련 활동, 안전·응급 처치 활동), 과학 정보 활동(모형 및 로봇 활동, 우주 천체 활동, 정보 캠프 활동), 교류 활동(국제 교류 활동, 다문화 이해 활동, 세계 문화 비교 활동), 모험 개척 활동(탐사·등반, 야영 활동, 해양 활동, 극기 훈련), 문화·예술 활동(지역 문화, 세계 문화, 어울마당, 전통 예술 활동), 봉사활동(일손 돕기, 캠페인, 자선·구호 활동), 직업 체험 활동(진로 탐색 활동, 직업 현장 체험), 환경 보존 활동(생태 활동, 숲 체험, 환경 살리기 활동), 자기(인성) 개발 활동(자기표현 활동, 심성 수련 활동) 등 9개 문항에 대한 참여 여부와 총 참여시간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정도와 참여시간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 보완한 문항이다.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등으로 총 4점 척도의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 시에는 모든 문항을 역치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39로 분석되었다.

### 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연구를 참조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설문을 개발하였다. 공동체의식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등과 같이 4점 척도의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1=매우 그렇다, 2=그런 편이다, 3=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전혀 그렇지 않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 시에는 모든 문항을 역치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732로 분석되었다.

####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관계(5문항), 교사관계(5문항)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은 4점 척도(1=매우 그렇다~4=전혀 그렇지 않다)로 되어 있다. 측정된 자료를 분석 시에는 모든 문항을 역치환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0.852로 분석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학습활동(0.722), 학교규칙(0.708), 교우관계(0.748), 교사관계(0.827)로 높게 나타났다.

#### 4.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제시된 청소년의 체험활동 정도와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변수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든 자료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0.0을 이용하였고,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은 IBM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먼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그리고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을 하였다.

그리고 확인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후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효과분해를 통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2,351명 중 남학생이 1,176명(50.0%), 여학생이 1,175명(50.0%)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거주지역은 도시(2,014명, 85.7%)가 농어촌(337명, 14.3%)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동거여부의 경우 양부모 모두 있는 청소년이 1,994명(84.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편부모 등 기타가 355명(15.1%)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1,163명(49.5%)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930명, 39.6%), 중졸 이하(75명, 3.2%)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1,262명(53.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이상(853명, 36.3%), 중졸 이하(78명, 3.3%)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이 있는 학생이 2,101명(89.4%)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이 있는 학생도 1,373명(58.5%)으로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은 3천만~4,999만원 사이가 724명(30.8%)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하였다.

체험활동 중에서는 봉사활동(1,426명, 60.7%)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험개척활동(846명, 36.0%), 직업체험활동(759명, 32.3%), 건강보전활동(746명, 31.7%) 순으로 조사되었다.

&lt;Table 1&g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Percent	
Gender	Male	1,176	50.0	
	Female	1,175	50.0	
Region	Urban	2,014	85.7	
	Rural	337	14.3	
Family type	Living with father & mother	1,994	84.8	
	Living with father or mother, etc	355	15.1	
	Missing	2	0.1	
Father's academic level	<middle school	75	3.2	
	<high school	930	39.6	
	>college	1,163	49.5	
	Missing	183	7.8	
Mother's academic level	<middle school	78	3.3	
	<high school	1,262	53.7	
	>college	853	36.3	
	Missing	158	6.7	
Father's job	Yes	2,101	89.4	
	No	76	3.2	
	Missing	174	7.4	
Mother's job	Yes	1,376	58.5	
	No	827	35.2	
	Missing	148	6.3	
Annual income	<30,000,000	632	26.9	
	30,000,000~49,990,000	724	30.8	
	>50,000,000	863	36.7	
	Missing	132	5.6	
Experiential activity	Health	Yes	746	31.7
		No	1,605	68.3
	Science information	Yes	366	15.6
		No	1,985	84.4
	Inter-relationship	Yes	212	9.0
		No	2,138	90.9

Classification		N	Percent
Adventure	Yes	846	36.0
	No	1,505	64.0
Culture & art	Yes	509	21.7
	No	1,842	78.3
Service	Yes	1,426	60.7
	No	925	39.3
Job experience	Yes	759	32.3
	No	1,592	67.7
Environment	Yes	271	11.5
	No	2,080	88.5
Human nature	Yes	508	21.6
	No	1,843	78.4
Total		2,351	100.0

## 2. 측정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정규성 검정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대값이 '3'을, 첨도는 '10'을 초과할 경우 극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Kline, 2005). 체험활동 총 참여시간에 대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성을 벗어나 로그치환(log transformation)한 값을 사용하여 정규성을 확보한 후 사용하였다. 최종적인 분석결과 각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 또한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규성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9개 체험활동의 평균은 2.4개 정도로 나타났으며 총 체험활동시간은 2.6시간으로 분석되었다. 자아탄력성의 전체 평균은 2.902로 나타났고, 공동체의식의 전체 평균은 2.763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평균

은 2.797로 분석되었다.

## 3. 변수들간 관련성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체험활동(참여정도, 활동시간)과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참여정도와 자아탄력성간에는 상관계수가 0.176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활동시간과 자아탄력성간에는 0.1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간의 관련성( $r=0.474$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을 보면 공동체의식( $r=0.502$ )이 가장 높았으며, 자아탄력성( $r=0.466$ ), 체험활동 참여정도( $r=0.170$ ), 체험활동시간( $r=0.107$ ) 순으로 나타났다.



&lt;Table 2&gt;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Classification	N	mean	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	SE	statistic	SE
Experiential activity(Y/N)	2,351	2.400	1.786	0.867	0.050	0.798	0.101
Total time of experiential activity	2,351	2.646	1.041	-0.524	0.054	-0.295	0.108
Ego-resilience 1	2,351	2.945	0.547	-0.109	0.050	-0.254	0.101
Ego-resilience 2	2,351	2.870	0.482	-0.007	0.050	0.248	0.101
Sense of community 1	2,351	2.957	0.719	-0.308	0.050	-0.113	0.101
Sense of community 2	2,351	2.459	0.894	0.081	0.050	-0.741	0.101
Sense of community 3	2,351	2.670	0.837	-0.217	0.050	-0.501	0.101
Sense of community 4	2,351	2.966	0.777	-0.492	0.050	-0.016	0.101
School life adjustment 1	2,351	2.733	0.500	-0.235	0.050	0.449	0.101
School life adjustment 2	2,351	2.759	0.489	-0.135	0.050	0.612	0.101
School life adjustment 3	2,351	2.989	0.405	-0.173	0.050	0.814	0.101
School life adjustment 4	2,351	2.708	0.667	-0.156	0.050	-0.119	0.101

&lt;Table 3&gt;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Classification	degree of experiential activity	time of experiential activity	Ego-resilience	Sense of community	School life adjustment
degree of experiential activity	1.000				
time of experiential activity	0.488**	1.000			
Ego-resilience	0.176**	0.101**	1.000		
Sense of community	0.165**	0.115**	0.474**	1.000	
School life adjustment	0.170**	0.107**	0.466**	0.502**	1.000

\*) p<0.05,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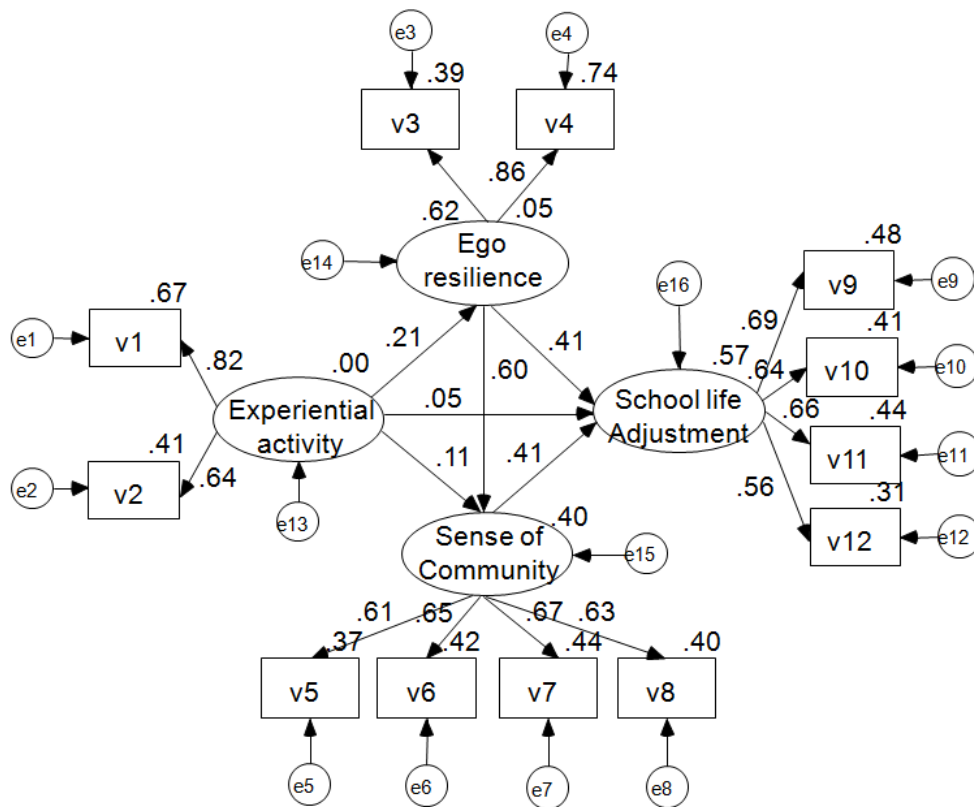
#### 4.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먼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의 타당성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수(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인 체험활동,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모수추정(parameter estimation) 방법으로는 OLS가 아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Goodness of fit analysis on measurement model

Classification	$\chi^2$	p	NFI	RFI	CFI	TLI	RMSEA
Model	736.826	0.000	0.993	0.983	0.989	0.983	0.073
Criteria	-	>0.05	>0.90	>0.90	>0.90	>0.90	0.05~0.08



\*) Goodness of Fit index :  $\chi^2=747.986$ ,  $df=48$ ,  $p\text{-value}=0.000$ ,  $NFI=0.991$ ,  $RFI=0.986$ ,  $IFI=0.992$ ,  $TLI=0.987$ ,  $CFI=0.992$ ,  $RMSEA=0.079$

<Figure 2>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적합도는 모집단의 추정된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과 표본집단의 공분산 행렬의 차이로 검증하게 되는데,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chi^2$ 값에 대한 p값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chi^2$ 값은 표본의 크기, 다변량정규성, 측정변수의 개수 등 다양한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판단 시  $\chi^2$  값과 함께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NFI, RFI, CFI, TLI, RMSEA) 값은 적합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정한 측정모형은 좋은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정

### 1)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 검정

본 연구의 각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적 구조모형(overall model)을 검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X^2=747.986$ ,  $df=48$ ,  $p\text{-value}=0.000$ ,  $NFI=0.991$ ,  $RFI=0.986$ ,  $IFI=0.992$ ,  $TLI=0.987$ ,  $CFI=0.992$ ,  $RMSEA=0.079$ 의 값을 갖는 <Figure 2>와 같은 최적모형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구조모형 검정결과 NFI, RFI, IFI, TLI, CFI, RMSEA 등 적합도 평가지수들이 좋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가짐으로써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측정변수들에 의해 이론변수가 설명되어지는 비중을 나타내는 다중상관계수(SMC: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의 값이 자아탄력성(ego-resilience)=0.246, 공동체의식=0.399, 학교생활적응=0.572로 나타났다. 즉 이론변수의 다중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 모형내에 설명력이 높은 측정변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가설의 검정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도출된 각 이론변수들간의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정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을 것이라는 <가설1>을 검정한 결과,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21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 <가설2>는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2>를 검정한 결과,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10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많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3>을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051, Critical ratio값은 2.008( $p<0.05$ )로 체험활동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는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을 것이다. <가설4>를 검정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59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5>를 검정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409, Critical ratio값은 11.072( $p<0.001$ )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6>은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가설6>을 검정한 결과, 중학생의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path coefficients=0.41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01$ ). 따라서 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 3) 효과 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중학생의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direct effects), 간접효과(indirect effects), 그리고 전체효과(total effects)로 나누어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제시된 직접효과(경로계수 값)와 함께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129로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까지 포함하여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0.23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체험활동은 0.186, 자아탄력성은 0.249로 나타나, 이를 포함한 전체효과는 체험활동이 0.238, 자아탄력성이 0.657로 각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lt;Table 5&gt; Hypothesis testing by SEM results

	Path	Standardized	Unstandardized	SE	CR	p
Ego-resilience	← Experiential activity	0.215	0.050	0.008	6.159	0.000
Sense of Community	← Experiential activity	0.109	0.033	0.009	3.604	0.000
Sense of Community	← Ego-resilience	0.599	0.770	0.047	16.328	0.000
School life adjustment	← Experiential activity	0.051	0.012	0.006	2.008	0.045
School life adjustment	← Sense of Community	0.415	0.326	0.030	10.785	0.000
School life adjustment	← Ego-resilience	0.409	0.413	0.037	11.072	0.000
v5	← Sense of Community	0.612	1.000			
v6	← Sense of Community	0.647	1.314	0.058	22.708	0.000
v7	← Sense of Community	0.666	1.269	0.057	22.167	0.000
v8	← Sense of Community	0.631	1.116	0.051	21.934	0.000
v3	← Ego-resilience	0.625	1.000			
v4	← Ego-resilience	0.861	1.213	0.056	21.829	0.000
v1	← Experiential activity	0.816	1.000			
v2	← Experiential activity	0.641	0.468	0.061	7.716	0.000
v9	← School life adjustment	0.691	1.000			
v10	← School life adjustment	0.643	0.910	0.035	25.977	0.000
v11	← School life adjustment	0.662	0.777	0.032	24.248	0.000
v12	← School life adjustment	0.559	1.079	0.048	22.719	0.000

잠재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로1>은 체험활동→자아탄력성→학교생활적응(0.215\*0.657=0.141)이다. <경로1>은 체험활동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은 높아지고(0.21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은(0.657) 결과를 보이는 과정을 나타낸다. <경로2>는 체험활동→자아탄력성→공동체의식→학교생활적응(0.215\*0.599\*0.415=0.053)이다. <경로2>는 체험활동이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0.215), 자아탄력성은 공동체의식 양(+의 영향을 주고(0.599),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정

(+)의 영향(0.415)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경로3>은 체험활동→공동체의식→학교생활적응(0.238\*0.415=0.099)이다. <경로3>은 체험활동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은 높아지고(0.238),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함(0.415)의 미한다.

#### 4) Sobel test를 통한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Sobel test를 통해 산출된 Z score 값이  $p < 0.05$  수준에서 1.96보다 크고,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lt;Table 6&gt;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Classification			Parameter Estimat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Experiential activity	→	Ego-resilience	0.215	-	0.215**
Experiential activity	→	Sense of Community	0.109	0.129	0.238**
Experiential activity	→	School life adjustment	0.051	0.186	0.238*
Ego-resilience	→	Sense of Community	0.599	-	0.599**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	0.409	0.249	0.657**
Sense of Community	→	School life adjustment	0.415	-	0.415**

\*) p&lt;0.05, \*\*) p&lt;0.01

$$z = \frac{ab}{\sqrt{b^2 SEa^2 + a^2 SEb^2}}$$

(a: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 경로계수,  
b: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 경로계수,  
SEa: a의 표준편차, SEb: b의 표준편차)

중학생의 체험활동→자아탄력성→공동체의식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Z Score=5.839, p<0.05)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체험활동→자아탄력성→학교생활적응 경로에서도 매개효과(Z Score=5.453, p<0.05)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은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수임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체험활동→공동체의식→학교생활적응 경로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Z Score=3.474, p<0.05)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탄력성→공동체의식→학교생활적응 경로에서도 매개효과(Z Score=9.056, p<0.05)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체의식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고찰 및 결론

### 1. 고찰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과 같은 문제들은 매물적인 교과지식 위주의 학습활동에서 기인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교육부, 2009)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된 체험활동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아직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체험활동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체험하는 활동으로 전인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와 경험의 축적은 ‘보이지 않는 경로(invisible path)’를 통해서, 즉 무수히 많은 매개변수의 영향을 통해서 목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험의 축적이 어떻게 체험활동의 목표달성지표인 창의성이나 인성 또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의 규명은 매우 어렵다

(이기봉 등, 2011).

체험활동이 동기형성이나 자아존중감에 주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몇몇 정의적인 변인들, 예를 들면, 성취동기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동기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출되었다. 그러나 질적인 조사를 통해서서는 정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분명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이기봉 등, 2011).

또한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동기형성이나 자존감,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에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현철 등, 2012). 본 연구에서도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 $p < 0.001$ ), 공동체 의식( $p < 0.001$ ), 학교생활적응( $p < 0.05$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인 체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주어진 현상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숙한 자세가 형성되기도 한다(여성가족부, 2012).

체험활동을 통해 형성된 자아탄력성은 외적 상황에 대한 내적 변인으로 개인적 자원의 기능을 한다(박은성과 현은민, 2007). 따라서 환경적응능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설명력이 감소하는 연구(김보성 등, 2009)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연구(박순주, 2011)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은 높게 나타났다(박선영, 2011; 한신애와 문수백, 2011; 이쌍이, 2010; 하명선과 이순복, 2009; 하현

주 등, 2008; 이수현과 최혜림, 2007). 특히 환경적, 가정적 자원이 빈약하여 위험요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거나 학교생활 등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취약 계층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교 체험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성장에 도움이 될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박순주, 2011) 이러한 청소년이 체험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자아탄력성이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자아탄력성은 내적 심리적 기제로 개인의 역동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체험활동을 통해 심리적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이 제고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학교생활적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내외적 스트레스에 맞서 싸워나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06년 71,96명, 2007년 14,404명, 2008년 35,431명의 전국 초1,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한 정신건강선별검사서에서 대략 13% 내외의 청소년이 정신건강문제를 지닌 위험군으로 조사된 것처럼(양동현과 유한익, 2009) 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는 누구에게나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문제는 단지 학령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의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의 70% 이상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양동현, 2009)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래들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을 학교보건교육의 일환으로 하여 자아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교육협의회(IEA)가 2009년 세계 36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 14만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지표 0.31점(1점 만점)으로 35위에 그쳤다. 그 중 '관계 지향성'과 '사회적 협력' 부문의 경우 최하위(0점)였다. 이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소중한 가치 즉 공동체 의식이 우리나라 청소년 사회에서 얼마나 상실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이솔, 2011).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에 의한 공동체 의식의 상실 문제도 체험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체험활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증가에 기여하고 사회적 협력이나 공익의식의 제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적극 참여할수록, 체험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과정이 숙의적일수록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가 높다는 연구를(<http://s-space.snu.ac.kr>) 보더라도 체험활동은 청소년이 공동체 의식을 지니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체험활동은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형준과 이광모, 2010; 박재숙, 2010; 이은성, 2009; 서주영, 2001)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지역사회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연구결과(서정아와 조홍식, 2012)와 동일하게 본 연구에서도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더 높았으며 공동체 의식은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일수록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수준이 높았고, 반면에, 주의산만과 사회적 위축 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체험활동에의 참여는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여성가족부, 2012)와 동일한 맥락을 보여주

었다. 또한 체험활동 참여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하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과 학교적응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고관우와 남진열, 2011)에 의해서도 본 연구결과는 지지되었다.

## 2. 결론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체험활동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학교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현재 우리나라 학교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이라 해도 무리는 없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체험활동은 자아탄력성과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에 매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건강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발달적 가치 제고 및 함양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체험활동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고 사회변화를 반영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세부 프로그램 중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가중치(연간 사회·경제적 가치, 839억원)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보건프로그램의 가중치(연간 사회·경제적 가치, 747억원)가 높은 연구 결과(여성가족부, 2012)에 비추어 볼 때 보건의 교육을 체험활동에 적극 포함시키는 정책이 모색되어 한다.

보건의 교육은 적극적인 체험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활동과 연계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건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양질의 학교보건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한다면 보건의 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전체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 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선정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어려웠음을 밝힌다.

### 참고문헌

1. 강민철. 수련활동이 또래 집단의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6.
2. 강지영.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3. 고관우, 남진열.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연구 2011;13(4):231-250.
4. 교육부. 과학과 기술.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총론. 서울: 교육부, 2009.
5. 김기현, 안선영.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6. 김보성, 박명실, 민윤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11(5):2517-2526.
7. 김소희. 수련활동 체험이 청소년의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7.
8. 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012;20(2):285-304.
9. 김태완. 고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석사학위논문]. 경산: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10.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11. 김현철.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12. 김형준, 이광모.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시간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0;12(4):117-135.
13. 노규식. 방과후 활동에 대한 뇌과학적 관점. 청소년체험활동 개념정립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14. 류시영, 강방훈.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과 자아존중감,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2;23(4):27-50.
15. 박선영.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16. 박순주. 빈곤아동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자기조절학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상담대학원 대학교, 2011.
17. 박은성, 현은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07;25(6):83-94.
18. 박재숙. 학교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자원봉사활동,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17(4):157-182.
19. 박정임.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수학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인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20. 배미희, 김홍순, 김청송.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현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2;19(9):309-325.
21. 백승림, 손진희, 최윤진. 고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12;10(4):77-90.



22. 보건복지부. 2010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2010.
23. 서정아, 조홍식.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24. 서주영.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
25. 안병환, 김창현.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2006;5(2):41-60.
26. 양동현. 청소년 정신건강장애. 대한의사협회지 2009;52(8):745 - 757.
27. 안동현, 유한익. 학생정신건강검진. IN: 이종국(편). 학생건강검진 개선안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9.
28.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면실태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2010.
29. 여성가족부. 청소년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경제적 가치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12.
30. 유슬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교육과정연구 2012;30(2):83-109.
31.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32. 이슬. 나만 잘되면 그만...비뚤어진 미래' 어찌나. The Daily Focus 2011년 3월 28일자.
33. 이수현, 최혜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7;19(2):321-337.
34. 이쌍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35. 이은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9;40(2):313-335.
36. 최인재.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37. 하명선, 이순복.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09;18(3):247-258.
38. 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2008;17(1):1-19.
39.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 교육기본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2.
40. 한국박물관협회.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2012.
41. 한신애, 문수백.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1;18(3):355-376.
42. 日本青少年教育振興機構. 長期宿泊体験活動に對應した學校教育のカリキュラム開發と有効性に關する調査研究. 中間報告書. 2009.
43. Block, J., Krema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44.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Y: Guilford Press.
45. Knapp MRJ, Almond S, Percudani M. Costs of schizophrenia. In: Maj M, Sartorius N (eds.). *Evidence and Experience in Psychiatry*(Volume 1).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99.
46. <http://s-space.snu.ac.kr/pdfupload/0003140260.pdf>(2012년 4월 40일 검색)